

佛法에 대한 바른 안목 서야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4)

주제:간화선의 의미와 전통-정견
법주:설우 스님(청주 법인정사 선원장)

10월 16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 하와이 보타산 무량사주지 도현에서 법석에 오른 설우 스님(청주 법인정사 선원장)은 맑고 먼 길을 따라 인도에서 중국에 전해진 선의 역사와 함께 초조 달마 스님의 마음을 하와이에서 되살려내려 하고 있었다.

무량사 창건 30주년과 문화원 준공을 기념하여 무량사와 현대불교신문사(대표 김광삼)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법회에서 설우 스님은 '간화선의 의미와 전통-정견' 주제로 법문했다.

정견 서면 부처님 가르침 믿는 마음 지극해져

"이역만리 마나면 하와이에서 간화선 수행을 하고 또 간화선 수행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려면 정견(正見)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안목인 정견이 서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이 아주 지극해 집니다. 그러면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하며, 수행을 해서 생기는 공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 수행을 해야겠다는 발심이 절로 일어납니다."

기독교 세력이 주를 이룬 교포 사회에서 불자로서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 불법이 좋아 수많은 유혹을 뿌리친 신도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법문이 아닐 수 없었다.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든 없든 서로가 의지하면서 떠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緣起法)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이 없으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연기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될 때,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 나와 남을 차별하는 시비분별, 시기, 질투를 떠나 진정한 공존(共存)의 길로 나아가갈 수 있습니다."

시비분별, 시기질투, 미움 없이 사는 길을 설하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도들의 뇌리엔 고국을 떠나와 언어, 인종, 문화의 차이로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설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는 동안 고통 없이 사는 길을 앞에 두고도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았다는 자각과 함께 인종, 시공을 뛰어넘는 진리의 세계에 들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느꼈다.

스님은 "이 우주 세계를 법계라 하며 법계에 두루한 생명 세계가 살아가는 이치는 연기법으로 요약된다"며 "연기법을 이해하고 마음의 분향을 돌아가야 생명들은 영원히 노래하고 영원히 춤을 추며 살 수가 있다"고 설파했다. 만생명이 영원히 춤추고 노래하는 적정열반의 세계, 이곳이 간화선 수행의 공덕이 아니고 무엇이랴.

"간화선 수행은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이대로 부처님이라

는 철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수행"이라고 정의한 스님은 "선은 곧 부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인도의 부처님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중앙 아시아쪽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심 즉 자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는 그 당체를 깨우치는 수행법 중에서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법문했다.

'행복의 문' 안에서만 열 수 있어

이러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독특성과 수승함은 바로 화두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화두는 깨달음을 얻는 조사 스님들이 제시한 것으로 중생 수준에서 보면 상식과 생각의 선을 뛰어 넘어 우리 생명의 본래 근원적인 존재의 바탕, 성품 자리를 바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화두는 시공을 초월하며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법문을 하는 저의 주인공이고 또 법문을 듣는 여러분의 당체 즉 불성, 본심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면서도 바깥의 조건들에서 행복을 찾고 있어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은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행복의 문은 바깥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고, 안에서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밖의 물질이나 조건에서 성취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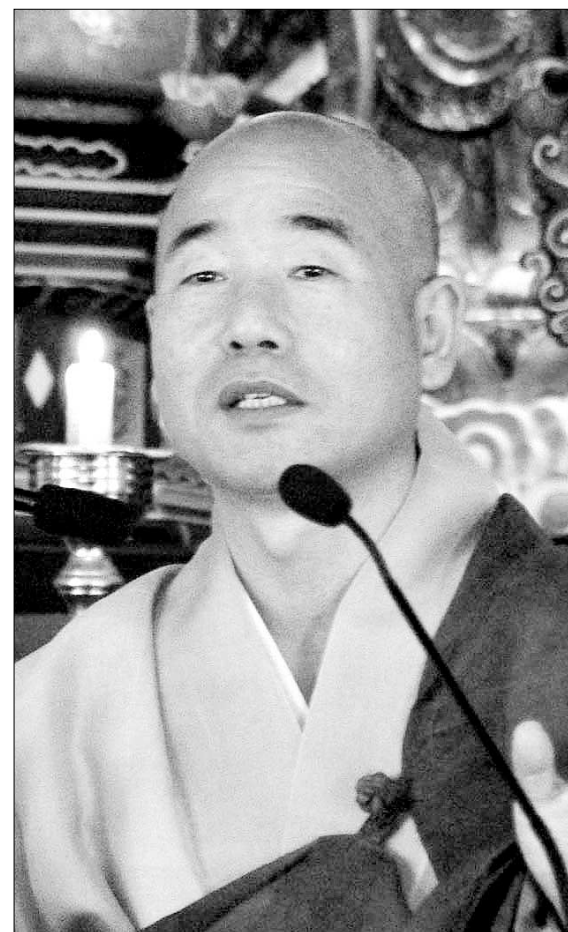
"행복의 조건이 안에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열고 쓰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보배가 내 속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자꾸 부나 명에 등 밖으로 찾아 헤매 다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에게 못할 짓도 많이 하면서 타향객지에서 외롭게 힘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법회를 통해 행복과 평온의 조건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등, 시비를 떠나 마음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법회의 진정한 의미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즉 불성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분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됩니다."

출발점은 '내가 본래 부처' 라는 믿음

"우리의 존재법칙을 깨닫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 수행입니다. 기도, 염불 등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행방법 중 간화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보살승에서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육바라밀이라는 선행을 닦아야 한다고 하지만 간화선 수행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성품과 똑같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 그대로 생활을 하고 배불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지금 이대로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9층에 올라가려면 내가 1층에서 9층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보살승과는 달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9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수승해지면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이대로가 바로 완성이고, 부처님입니다."

'중생심이 그대로 법계심'이라는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 시공을 뛰어넘어 하와이에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대중들의 마음에 부처님 마음인 '선'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한 설우 스님의 자상한 법문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두 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수행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믿음이 출



하와이 무량사 법문회에서 법문하고 있는 설우 스님.

발'이라며 신심의 중요성을 일깨운 스님은 "믿음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간화선 수행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간화선 수행을 하면 현실의 고통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본래 우리의 본바탕인 부처님의 성품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스님은 믿음만 있고, 실천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며 생활속의 정진을 당부했다. 간화선 수행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신심을 바탕으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 즉 본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간화선 수행이 관념에 그치게 되고 생각으로 머물면서 생활화되지 않는 폐단을 낳게 된다는 것이었다. 수행이 곧 생활과 직결되어야 한다.

'왜 고통속에서 살까' 본심 일어나야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삶을 살 수 있고, 부처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니 내가 곧 부처라는 믿음으로 화두를 들어 눈 깜짝 할 사이에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정견을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는 간화선의 전통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대중의 이해를 도왔으며 '연기사상을 바로 안 사람은 화두를 들면 바로 이 자리에서 불성 자리에 들 수 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법문 뒤에는 참석 지도가 이어졌다.

이날 법문을 들은 불자들에게 선의 세계는 더 이상 멀지 않았다. 그날 밤, 무량사를 품고 있는 보타산 자락에는 구름을 벗어난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올랐다.

글·사진/하와이=천미희 기자

■ 설우 스님은 1971년 상주 원적사에서 원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5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8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통도사 수도당 도성암 등에서 20여년간을 성만했으며 교학에도 해박하다. 현재 조계종 교육제도개선위원회 위원·승가고시위원·기본선원 교선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이국'땅에서 듣는 간화선 법문-참석자들 소감

많은 신도들이 발심하는 계기 돼

○...이번 법회 때문에 한국 방문을 미루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선원장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한국에 안 가고 법회에 참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발심도 하게 됐어요. 이번 겨울 동안기에 무량사 태평선원 수좌스님들과 함께 더 많은 신도들이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기쁩니다.

전이순(65·무량사 신도회장)

바쁜 생활속에서도 화두 들 수 있구나...

○...선의 유래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화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화선 수행을 열심히 해서 늘 부처님과 함께 생활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스티브 리(50)

참선법 알게돼 실천할 용기 생겼어요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참선에 대해 없는 방법, 호흡법 등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서 직접 해보겠다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직장생활 때문에 절에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제부터는 집에서 간화선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4주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선원장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직장 때문에 못 나와 아쉬워요. 한국의 선원장스님들을 만나 뵙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수진(45)

남은 생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데다가 관절이 심하게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법문을 들었어요. 이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허리가 아픈 것도 참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비디로나 녹음 테이프를 구해서 다시 듣고 또 들어서 이해를 제대로 하면서 남은 생을 공부하다가 가야겠어요.

이영진(85)

앞으로도 선법회 계속 열렸으면...

○...유명하신 큰스님들을 초청하여 하와이에서 간화선 법회를 해주신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법회가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수행법을 배웠으니 정진하겠습니다.

김진성



법문이 끝난 후 설우 스님의 지도로 참선을 하고 있는 무량사 신도들.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一氣功研究會는

13년전(1993년)설립되어 파워붕, 신선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 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경북영주수련원)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 몸이 마음을 닦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으나
-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바르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 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 기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약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심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데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50기 - 10월 20일 오후2시 ~ 23일 12시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일 선착순 20명 마감